

내부원고

사업부장 / 신재균

「빛」과 「소금」과 같은 「한국골수은행협회」과 되기를 갈구하면서...



癸未年 새해가 밝아 온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가는군요. 여러분, 健康하시고 宅内 두루 平安하십니까. 저는 한국골수은행협회 신재균 사업부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골수은행협회가 創立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협회는 백지상태에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기증희망자 40,321명의 등록과 골수기증 403명의 골수기증(이식)이 이루어졌고, 일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골수기증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아직도 미흡하지만)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紙面을 통해 감사한 마음 전

해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사단법인 한국골수은행협회는 이제까지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백혈병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협회가 되기 위해 尙後 협회가 나아가야 할 方向을 定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에 근무하는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모아 『협회의 목표』, 『협회에 근무하는 각자의 마음가짐』, 『행동요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행동化 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더욱더 質策하여 주십시오.

目 標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生命)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行動指針

麻杵絶葷(마저절위)

“절구 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성어로 “쉬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뜻임

- 기증자를 한 가족처럼,
- 환자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
- 비전을 가지고,
-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 웃으면서,
- 즐겁게 일하자.

細部 行動要領

-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깔끔한 이미지를 갖자.
-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향적으로 적용하자.
- 업무는 신속·정확·능동적으로 처리하며, 보고를 생활화 하자.
- 관련업무의 전산화·데이터화를 실천하고, 전문지식 및 관련지식을 습득하자.
- 회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고, 가능한 간단히 하자.
- 공과 사를 구별하자.
- 환경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자.

여러분, 저희 협회는 金相仁 會長님(79세)을 모시고 위와 같은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골수기증으로 환자 한 분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환자 한 분이 계시면 그 가정은 파산지경에 이릅니다. 때문에 환자 한 분이 아니라, 한 家庭, 더 나아가 우리 社會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불모지』와 같은 우리나라 『골수기증사업』에 참여하신, 실제로 기증한 분과 기증을 희망하여 기증 등록하신 분들은 선구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협회는 협회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제교류확대(현재

일본의 JMDP 하고만 교류함), 후원금 모금활성화, 골수기증사업 홍보 등을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국제교류확대는 미국의 NMDP(현재 재미한국인으로 기증희망등록자수 35,000명 있음)와 대만의 골수이식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증희망자『pool』를 보다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현재, 1년에 12,000명 등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후원금 모금 활성화입니다. 협회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목적은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골수기증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는 홈페이지 보완, 공익광고 제작 및 방송, 기증자 감사의 밤 행사 등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貴重하고 所重한 生命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협회의 目標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채찍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